

청소년 헌장*

이 윤 구**

- I. 총 론
- II. 본 론
- III. 결 론

헌장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는 것이 부의미하지 않을 듯합니다.

1. 「헌장」의 어원과 어의

I. 총론

이 논문은 「청소년 헌장」(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헌장제정 기초위원회¹⁾의 한 멤버였던 필자에 의하여 집필되고 1990년 3월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의 주제발표를 위한 강연 원고로 준비되었습니다.

필자에게 맡겨진 주요과제는 기초위원회가 만들어 낸 헌장 시안을 가급적 소상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해설하는 것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서설 즉 “헌장”이란 무엇인가?, “청소년”의 시대적인 중요성, 그리고 이

헌장이라는 낱말이 인간사회에서 보편화된 것은 문명의 역사가 근대에 들어와서였고 특히 현대에 유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어원을 찾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꽤 오래전의 구라파를 상고하게 됩니다. 후기 로마시대의 관행을 본따서 앙그로-색슨족 사회가 7세기를 전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Charta”(라틴어로 종이)는 그 후 11세기에 들어 오면서 고대 영어로 “Charter”(헌장)로 바뀌게 되기까지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와 권리주장의 목적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 이 글은 필자가 청소년 헌장 공청회(세종문화회관 1990. 3. 15.)에서 발표한 강연원고를 총론은 원문 그대로를 전재하고 각론은 공청회 이후에 수정되고 각의를 통과하여 1990. 5. 12. 선포된 헌장을 풀이하여 보충한 것이다.

** 한국청소년연구원장

1) 위원장: 김 수 남

위 원: 김찬진, 구천서, 박선영, 박성수, 이동원, 이종환, 임영빈, 황육성, 김사홍, 이윤구

간 사: 차 광 선

11세기 중엽으로부터 나온 헌장들은 그 특징이 통치자의 관인(官印)과 문건공포의 시일에 명확해지고 헌장, 혹은 왕의 칙허문을 받을 대상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장이 세련되고 간결하고 양피지의 질도 높아지고 외관상의 권위도 한결 돋보입니다.

헌장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제일 팔목할만한 첫번째 이정표는 1215년의 저 유명한 Magna C(h)arta(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왕 요한이 그 나라의 보통사람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허락하는 법중의 법, 빛나는 칙허장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동부 펜실바니아의 주민들을 위해 윌리엄 펜(William Penn)이 1701년에 베푼 특권헌장(Charter of Privileges), 러시아의 대제 캐터린 II세가 1785년에 귀족에게 준 헌장등이 맥락을 이어 내려오다가 19세기의 불란서 헌장(1814), 그리고 현대의 세계사회가 자랑하는 그 유명한 대서양 헌장(1941)과 국제연합헌장(1945)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는 가히 선언문(Declaration)과 헌장과 국제조약(Convention)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만큼 많은 중요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헌장」은 헌법의 전장(典章), 법칙, 법률, 법적으로 정한 규범이며 “국가나 그밖의 집권자가 어떤 권리나 특권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여하는 문서”²⁾입니다. 헌장이 한 나라나 국제기구에서 채택되어 선포되면 헌법과 유사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일반법률이나 규범이 헌장의 정신이나 조문에 상응하게 하고 위배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헌장의 긴 역사를 통찰해 보거나 현대사회의 통례를 미루어 보게 되면 현실은 반드시 이러한 엄격한 원칙이 예외없이 지켜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헌장은 바람직한 이상의 꿈을 종이위에 담아 보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거나 있어도 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장이 참으로 귀하고 중한 까닭은 어느 한 시점과 장소에서 그 당시, 당대에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원칙이나 이상론을 담은 것들이 가까운 장래에나 혹은 이웃나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법제화되고 산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카르타”(Charla)는 휴지가 아닙니다. 종이 그속에 담긴 정신이 권리의 주장이건 특권의 부여이건 앞으로 올 세상의 이상이건 간에 어느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 20세기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로 되어가는 인간가족, 지구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정되고 공포되는 선언, 헌장, 협약들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런 이유때문에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청소년”의 시대적 중요성

청·소·유년(靑少幼年)에 대한 관심이 오늘과 같이 고조된 까닭은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급격하게 늘어난 연소자층의 절대적, 숫자 상대적 비율입니다. 전세계 15세 미만의 소년소녀(유아포함)를 아동(또는 어린이)으로 생각하고 한가지 예만 들어 보면 1970년에 총인구가 약 14억인데 1990년에 18억이 되고 2000년대에 가면 20억이 넘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합니

2)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의 정의

다.³⁾ 10년마다 2억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15세이상 2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국제연합의 기준을 따라 청년층의 인구추세를 살펴도 거의 유사한 통계에 접하게 됩니다. 1970년에 6억6천1백만명의 청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1984년에는 9억2천2백만, 환언하면 39%의 증가를 보이고 1960년에 비하면 79%의 급성장을 기록했습니다.⁴⁾

청소년층의 인구가, 50억이 좀 넘는 세계의 총인구 가운데서 30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청소년을 그저 “내일의 주인”이라는 미명이나 구호아래 제쳐놓고 지날 수 있는 시대는 아주 가버렸습니다. 평균 두사람 가운데 한사람은 청년, 소년소녀, 유년입니다. 그들의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공부할 권리, 건강할 권리, 일할 권리, 기쁘게 살 권리를 빼놓고 한 나라가 세상 일을 논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아동의 권리”가 국제기구간에 거론되고 1979년에는 “세계 아동의 해”를 특별히 갖게 되었고 1985년을 “세계 청년의 해”로 정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발한 개발, 그리고 세계평화예의 기여를 소리높이 외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1989.11.10 유엔 44차 총회)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하여서 국제협약으로 채택되고 금년내로 비준과 공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청년의 해”를 가졌던 일이 불과 5년전 인데 청년층에 관한 세계만방의 관심과 후속조

치나 정책개발은 별로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이 유엔의 걱정입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과 동시에 오늘의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귀한 동참자들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나 국가나 청소년의 뚜렷한 존재를 의식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이해와 관심을 기울임이 없이 내일, 다음 세대, 21세기가 윤바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와 철학이 요청됩니다. 기아, 질병, 무지, 주택난, 오염된 환경, 실추되어 가는 도덕과 급변하는 가치관을 속에서 인류가 아주 패망하지 않으려면 청소년들을 도와 주어야 할 대상, 비생산적인 투자의 대상에서 사회개혁, 국가발전, 세계평화를 위한 적극적 자원으로 선용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지론입니다.

3. 「청소년 헌장」 제정의 의의

“어린이”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말하려면 이 땅에 사는 육천오백만 겨레가 참으로 자랑할만한 세계적인 업적이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운동사는 1924년의 “제네바 선언”을 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3년전에 「어린이」란 말을 방정환선생께서 창제하시고 1923년에 “색동회”를 발족시키면서 같은 해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천교도소년회가 중심이 되고 불교소년회 반도소년회가 협력하여 공포하고 기념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적은 그러한 찬연한 “동방의 빛의 나라” 운동이 그 이듬해에 구라파에서 세계적인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 잘못

3) 레이빈 모-리/헤미온 로벨, 나의 이름은 오늘, 런던대학 아동보호연구소, 1986, pp. 24-25

4)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청년 분야의 기획 지침(유엔 40차 총회 인준), 1985, p. 15

된 일 같지 않습니다. 5월이 우리에게 베푼 감격을 가져다 주는 청소년의 달로 오늘까지 이어져 온 역사의 원천은 이렇게도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랬이 아닙니다. 세계지구 유엔은 1959년 11월20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아동의 권리선언”(개정)이 총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리 알고 취한 조치였던 것같이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은 유엔보다 2년 앞서서 1957년 5월5일에 제정·공포되었습니다. 헌장만 만들면 될하느냐고 혹자는 말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관심이나 투자가 미미하고 그들의 탈선, 범죄가 극심한데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말만 앞세우는 일이 아니냐는 의문도 가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분해 봅니다. 소파선생이 없었으면, 어린이 헌장이 아니었으면 이 강산의 청소년의 세계가 얼마나 어둡고 부끄럽고 메말라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땅이 청소년의 천국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어린 우리 식구들이 살기에 역겹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카르타가 아닌가 합니다.

청소년들이 모이면 같이 소리높여 읽고, 부모들이 한데 어울려서 화답하며 아버지의 책무와 가정의 아름다움을 외쳐보고, 학원에서 스승과 제자가 손을 잡고 외울만한 헌장, 사회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하듯 부를 수 있는 선언적인 문서, 국가가 최우선적인 정책을 청소년을 위해 펴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는 약속과 함께 세계와 우주로 약진해 나아갈 짧고 어린 우리의 후예들이 꿈에 부푼 환상을 꿈꾸며 다져보는 “청소년헌장”이 제정되는 이 1990

년을 이 사람은 한 세기에 한두번쯤 밖에 없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큰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해방과 88올림픽의 기쁨과 감격의 여파를 몰고 이 민족이 세계의 무대를 향해 질주하는 정신을 이 카르타, 종이 한장에 엄숙한 마음으로 담아보려 노력한 기초위원회의 한 멤버로서 이 카르타의 혼이라고 할까 뜻이라고 할 글속의 글,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 보겠습니다.

II. 본 론

1. 전 문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 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밝힌다.”

“청소년”이란 표현은 청소년 자신들이 자기들을 통칭하는 주체적인 대명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헌장을 자신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격, 그리고 머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예지로서 외쳐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기초위원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또 동시에 이 헌장을 읽는 아버지, 스승, 지도자, 공무원, 그리고 전 국민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청소년”이란 친숙하고 부드러운 호칭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이 헌장이 누구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질문을 놓고 적지 않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자신들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다져보고 외쳐보고 강조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청소년”이란 주체적이면서도 객관도 동시에 가능한 술어를

택했습니다.

청소년을 유구한 이 겨레의 역사의 살아 있는 흐름, 맥락에서 단절하여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빛나는 전통을 계승지속하는 책임과 함께 이 민족과 세계가족의 “새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광영스런 임무와 권리를 양쪽 어깨에 진 세대가 청소년임을 강조하고 앞날의 “주역”임을 자부자긍하는 마음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은 천변만변 강조해도 좋습니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살지 못하는 민족의 청소년은 허전하고 혼미하고 방황하며 온갖 부덕한 생각과 행동에 빠지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단일 민족으로서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통일조국의 “발전의 일꾼이 되어” 국가와 민족을 빛내는 청소년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또 동시에 21세기에 접어드는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간가족 50억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는 비전을 전장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숭고하고 원대한 정신을 갖게 되기만 하면 우선 이 나라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굳건하게 됩니다.

이 27개 단어와 90여의 글자, 천천히 읽으려면 20초밖에 안 걸리는 현장 전문, 혹은 서장에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다 묶어서 넣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글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소리높여 외치는 이 땅의 청소년의 가슴이 벅차게 뛰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오른 손을 번쩍들고 하늘을 향해 응미하는 꿈으로 인하여 용기백배의 힘을 얻게 되기를 빌고 또 어느 정도 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나이를 두번살고 세번째 청소년기를 재수하고 있는 나이지만 이 전문을 읽고 또 읽는

동안 두 주먹속에 뜨거운 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덧없는 망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1. 청소년은 출생, 성별, 학력, 직업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모든 청소년은 적성과 능력을 갖고 닦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용기를 갖추다.”

“출생”성분과 성장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을 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자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두 어린이가 부모의 교양과 덕망, 가정환경이나 이웃들의 문화수준에 따라 천지의 차이가 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주 우수한 두뇌와 온후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도 불화한 집안이나 부도덕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자라면 그 절대적인 악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심신의 장애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는 불행한 어린이도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국가의 각별한 보호나 교육을 받게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70여년전 인도의 밀림에서 자라던 “늑대소년” ‘카라마’와 ‘아라마’ 자매의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으로 출생과 성장환경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줍니다. 생기는 사람이지만 행실은 늑대의 그것이었었는데 말은 물론 못하고 울음소리는 늑대와 꼭 같았습니다. 두팔은 사람팔이었지만 앞발노릇 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썩은 고기를 즐기며 음식을 혀로 핥아서 먹고 짐승들과는 즐겨놀이 사람은 무서워 했다고 합니다. 킹부인의 줄기찬 노력이 ‘카라마’를 사람으

로 되돌아 오게는 했지만 17살에 세상을 떠나고 ‘아라마’는 발견된지 1년반만에 죽었습니다. 이땅에 ‘카라마’와 ‘아라마’자매같은 청소년이 혹 없는지 모르겠습니다.⁵⁾

전통적 문화와 학력, 학풍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역시 중중대대(重重大大)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유·불·도의 전통종교와 함께 근·현대 200년 동안 급성장하며 들어온 기독교가 한수래의 네바퀴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고 동양사상이나 철학으로 기천년을 한틀에 판에 박힌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금세기 들어서면서 서양문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큰 혼란과 혼돈속에 휘말리고 있지만 이 폭풍의 힘이 한민족을 세계의 무대에 올려 놓았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학력”과 “직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오늘날 이 나라 안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는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마치 “학력”경쟁터인듯하고 우등이 아니면 부모에게 무슨 불효를 하는듯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고교 졸업생의 70%가 낙방, 낙제, 낙심, 낙담의 늪으로 빠져서 허덕이는 비극을 해마다 보아야 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면서 자녀들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이렇게 꿈과 희망을 잃게 하면서 나라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이 늪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해내는 몸부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제도교육과 완전고용(유급, 반급, 무보수 봉사직을 모두 포함)의 복지사회를 세

워 나가야 합니다.

타고 난 “적성”과 “능력”을 찾고 “갈고 닦아” 나가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 완숙한 성장인물이 되는데 있어서 “스스로 어려움”을 피함이 없이 당당히 맞서서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용기”를 기르고 길러주는 일처럼 위대하고 필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를 위한 국제협약의 권리 측면에서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덮어놓고 주장하는 권리뿐이 아니고 뼈를 깎는 아픔과 국기의 의무도 아울러 생각했습니다.

3. 가정의 참된 역할

“1. 가정은 청소년이 정서를 가꾸고 애정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아버지는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는 어른을 공경하는 몸가짐과 밝은 성품을 익힌다.”

청소년 자녀가 없는 가정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가정이란 기본적 사회 조직을 빼놓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회이건 가정(가족)을 방치하고 경시할 수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가족은 한 사회의 구성요소이면서 전체 사회의 다른 사회적 구조의 건강과 생존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혈연적 대가족, 부족, 동리, 큰 세대들은 다 사회의 공조직과 개인, 개가족(個家族)의 연대적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⁶⁾”고 호주의 가족연구원 원장 던 에드가르(Don Edgar) 선생은 강조하면서 약화붕괴필로를 지

5) 김용운, “2013년의 한국인의 이상”, 한국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pp. 4-5

6) 던 에드가르, “1990년대의 가족강화”, Family Matters, 1989, 4월호, pp. 2-5

달고 있는 “가족”을 90년대에는 강화하며 본연의 역할을 재확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가족,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비단 호주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청년의식조사」⁷⁾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정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1개국의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아버지가 가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녀의 “사회생활 지도”를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연 제1위(87%, 83.1%)이고 서독과 불란서가 제11위입니다. 그런데 실상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집안일을 위해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느냐”하는 질문에 11위는 우리나라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일본도 10위여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부자간의 중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느냐는 설문에는 서독이 1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2위이고 스웨덴, 싱가포르, 불란서가 비교적 하위에 속하여 그 나라들이 훨씬 좋은 나라임을 보여 줍니다.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스웨덴이 1위 한국이 다시 11위로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선생님 집에 다녀 오겠습니다”가 “어머니 학교에 다녀 옵니다” 보다 훨씬 실감이 나는 사회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야 말로 “정서를 가꾸고 애정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 “가정”이 되도록 혁신적인 사회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정부의 보고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일이 암담하다고 예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를 통하여서 “올바른 삶의 본”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을만큼 청소년 자녀와

의 대화가 적어지고 단절되고 아니 그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어 받아야 할 삶의 표본을 친구들사이, 더욱 좋지못한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애정과 대화”가 세대의 차별이 없이 언제나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공장, 오손도손 나누는 대화의 온상이어야 할 가정의 단합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족이나 가정은 개인의 일생보다 그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성년이 되어 결혼하고 곧 딴 가정을 만들어 집을 나가게 되고 새가족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별한 노력이 없이 가정이 공고하게 유지되기는 힘듭니다. 지금처럼 산업, 정보, 도시화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족위기”란 현대의 말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현장 기초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중의 하나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 효도 등이었습니다. “자녀는 어른을 공경하는 몸가짐과 밝은 성품을 익힌다”는 일이 잘못 이해하면 고루한 유교사상이나 전통문화를 쓸데없이 고집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공경은 서양문명의 오랜 전통에서도 결코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산업자본사회, 개인주의, 개방사상이 독가스처럼 만연해진 현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받드는 일이 무엇보다 귀하고 중합니다.

4. 학교의 올바른 위치

“1. 학교는 청소년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과 체력을 기르는 곳이다. 자질을 존중하고, 자아 실현을 통하여 삶을 윤곽하게 하는

7) 일본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세계의 청년과의 비교로 본 일본청년, 1989

길을 가르치며, 문화의식과 민주시민 정신을 높인다.”

각급학교에서 우리 청소년은 불행하게도 틀에 짜인 지식의 전수만을 위하여서 새벽부터 밤까지 스승과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발육에 소홀하여 턱걸이도 못하는 청소년이 있을만큼 몸이 나약해지고 체력장을 위해 너무 무리를 하다가 중환에 걸리거나 생명을 잃는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덕을 기르는 일에는 거의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 너무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가정이 모든 교육의 짐을 학교에 떠넘기는 상황과 옳지 않은 전통이 우리사회에 침투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가 적어도 지식의 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는 가정의 연장선에 우뚝 선 큰 가정, 내가족, 복합집단의 특유한 화학작용을 통해 지·덕·체의 “조화로운” 그리고 즐겁고 흥겨운 배움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학교가 삶과 직결되는,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고” 그런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고 노래하며 등교하고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혈연의 아버지와 학연의 아버지들이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이 더불어 사는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면 학교는 그 원리를 실험하고 실행해 보면서 시민생활의 지혜를 익히는 곳으로 건전한 삶의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의식과 민주시민의 정신”을 높이는 곳이 학교여야 합니다.

학교가 한 학급의 60명 어린이나 청소년을 1등에서 60등까지 등급을 매기는 판정소여서는

안됩니다.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1등이나 우등생은 그들에게 알맞은 “자아실현”을, 30등을 차지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그의 특유한 재질을 높여서 삶의 기쁨을 얻고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그리고 60등은 지식으로는 밑도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체력이나 덕력이나 그 밖의 어떤 재능이라도 하늘로부터 타고 나왔을 것으로 믿고 찾아내고 길러보는 그러한 배움터가 우리 학교라야 합니다.

“학과성적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피지도 못한 꽃망우리가 땅에 묻힌 것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불을 붙이기 위함이었습시다. 배우는 청소년들이 주역을 하고 스승이 조역을 하는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학습이 주축이 되는 학원, 학부모와 사부모(師父母)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청소년의 낙원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시다.

5. 사회공동체의 책무

“1. 사회는 청소년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있게 봉사하는 곳이다.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과 여가 선용의 마당을 제공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든다.”

청소년들이 “즐겁게 일하는”사회, 그리고 “보람있게 봉사하는 곳”을 가진 나라는 지상천국, 복지일등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아직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아니 올 유토피아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상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한발짝씩 내어 디디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실 이런 이상론을 펴기에는 너무나 각박하고 어두운 단면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학교사이를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어느때나 오가면서 해를 받지 않아야 하겠는데 정말 기막힌 사연들이 거의 매일 조·석간 신문에 실려서 우리 가슴을 무겁게 하고 눈을 찌프리게 만듭니다. 열살을 겨우 넘긴 소년들이 전자오락실을 같이 드나들던 친구가 좀 밍다고 옷을 입었어도 떨리는 엄동설한속에 옷을 벗기고 때리고 실신케 한 다음 그냥 버리고 종당에는 죽게하는 이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문방구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접착제, 본드를 환각용으로 쓰고 부탄가스를 마시고 귀찮은 세상을 잠시라도 잊어보려 하고, 중학생의 흡연, 고등학생의 대마초, 근로청소년이나 소년원생들 사이의 마약복용과 살인적인 음주, 인신매매와 윤락가의 퇴폐행위... 어떻게 다 열거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살인, 그리고 자살이 이렇게 증가하고 소년범죄가 강력화, 흉악화, 연소화해 가다가는 이 나라가 경제로는 성공하면서 사회는 실패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선진국, 정신적으로는 후진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 것이 식자들이나 뜻있는 국민의 심정입니다.

청소년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있게 봉사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과거에는 복지국가주의, 이상주의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지나 갔습니다. 청소년의 인구가 총인구의 32.6%⁸⁾, 즉 세사람중 한사람이 청소년인

데, 더욱 20-24세의 청년층이 424만이고 15-24세는 884만이나 되는 이 나라에서 청소년 근로자의 비율이 28.4%⁹⁾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소년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취업장들이 많아야 하겠다는 이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근로청소년·소녀의 67.4%가 여성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산업현장이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소년이 “보람있게 봉사하는 곳”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헌장은 강조합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오늘 우리사회나 국가가 전체인구의 1/3이 되는 청소년을 다 보호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도 벅차다는 경제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들을 개발과 생산적 투자를 위한 귀한 인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나약하고, 철이 없고, 보호를 해야 하고, 무작정 투자만 해야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지역사회 봉사사업에 이들 청소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나 많은 나라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런 새로운 가치관이 청소년의 머리와 가슴을 채울 때 비행, 탈선, 범죄가 상대적으로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사회공동체는 같이 져야 합니다. 이 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짐인지 모릅니다. “여보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늙기도 설어웁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들을 찾아 다니면서 봉사하는 숫자가 천이요 만이요 십만이요 할 때 우리 사회는 밝은 내일

8)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백서 1989, 체육부, pp. 51-56

9) 청소년육성위원회, 위 보고서, p. 265

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착하고 귀여운 청소년들에게 사회공동체는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댓가가 있고 주어야 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을 주고, 춤추고 노래부를 “여가선용”의 시설과 광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유해한 환경을 깨끗하게 해줌으로서 “성장과 발달”에 해받음이 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주변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각종 상업체, 청소년에게는 백해무익한 음란음반이나, 비디오, 만화와 영화, 유흥가의 연소자 고용과 출입목인 등을 일시에 정화하기는 힘이 들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자신부터 솔선하여 이 운동에 앞장 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드를 많이 사가는 아이를 제일 크게 제일 먼저 도울 사람은 그 물건을 파는 가게의 부모님, 아저씨, 아주머니 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언론이 말아야 할 책무도 여간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선행을 머릿기사로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비교적 너무 크게 보도하는 일은 길게 잡으면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젊고 착한 영웅들을 많이 찾아서 크게 알리고 실족한 청소년이 바른 길을 찾는 일에 언론이 총동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일을 막아야 하는데 그 선봉에 언론이 서 주어야 합니다.

6. 국가의 최우선적 책임

“1.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

건국후 우리나라는 정치적 남북 분단의 비극, 6·25전쟁의 쓰라림, 그리고 잣더미 위에서 재건을 굶주림, 혈벗음, 질병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50-60년대를 겨우 넘겼습니다. 70년대의 박차를 가한 산업사회화의 시기에는 성장제일주의로 사회복지적 투자가 아주 미미했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배려도 팔목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경제사회개발로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후반이었고 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사회정책이 활발해졌습니다.

80년대를 마치고 대망의 90년대에 들어온 후의 이 나라를 몇가지 사회지표¹⁰⁾를 통하여서 고찰해 보면 국가가 청소년을 위해 획기적이며 가시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아니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6·25동란 직후(1955) 2,150만의 총인구는 1989년에 이르러 꼭 배가 늘은 4,238만이 되었지만 1990년부터 인구성장률이 1%를 하회하여 0.97%로 시작하여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0.01%가 될 추세입니다. 인구사회학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1인당 소득과 소비(Per Capital GNP & PDI)는 1988년에 미불 4,040에 3,666달러이고 소득분배의 균등을 표시하는 로렌즈곡선도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의 사회지표 1989, pp. 59-398

나라가 중진국대열에서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서 선진국 그룹을 뒤쫓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저축률도 1970년 18.4%에서 38.1%(1988)로 급성장했습니다.

고용상태도 눈부신 성취를 이룩해 왔습니다. 1965년에는 1차산업 종사자가 58.5%였던 것이 1988년에는 20%로 감소되고 그대신 3차 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9%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사회화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에 7.3%에서 2.5%로 하락했습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1970년에 51.6시간 이던 것이 1988년에도 비슷한 51.1시간이어서 우리 국민은 생활이 나아져도 일에 몰두함이 한결같습니다. 명목 임금지수도 81년에 65.5%에서 88년에는 137.6(1985년=100)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실질임금지수는 같은 기간에 76에서 121.4로 올랐습니다.

위와같은 고무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보는 동시에 우리는 좀 실망이 되고 어두운 국면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 불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임금에 만족이 14.6%이고 불만족이 46.7%, 근로시간은 만족 16.9% 불만족이 41.6%, 인사노무관리에 만족 13.0%, 불만 37.6%로 나왔습니다.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70년대 중반에 비해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종졸과 대졸이 90:200 정도의 현격한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70년에 639명도 벌써 높은 숫자인데 '88년엔 1,925명으로 매일 평균 5명이 공장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고 39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예산의 GNP대비는 우리나라가 4.5%로 캐나다(7.4%), 덴마크(7.7%), 말레이시아(7.8%), 스웨덴(7.6%) 등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86년 현재 1,166명으로 서독(431), 호주(524), 캐나다(548), 미국(549)에 비해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심신장애자를 위한 치료나 보호와 훈련시설의 절대부족, 주택의 태부족, 학교시설의 미비, 환경공해의 심각화등은 다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못되고 크게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법, 특히 살인사건의 발생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제 말만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청소년을 위해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이 현장의 채택공포와 함께 “최대의 노력”이 담긴 정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청녀(靑女) 소녀(少女)들이 정치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조용하다 하여 더이상 그들의 복지문제를 방치할 수 없게 된 화급한 상황은 일간신문을 하루만 읽어도 곧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동안 우리는 성인 위주의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청소년의 몫을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전담하는 중앙부처(체육부)가 생기고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고 육성기금이 적으나마 적립되기 시작한 것 등 일련의 발전적 이정표가 80년대 후반부터 하나씩 돌씩 모습을 들어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태산같은 청소년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부나 국회가 문자 그대로 획기적인 예산의 할당과 정책의 시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즐거운 “배움터”, 흥겨운 “일터”, 이강산 방방곡곡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88올림픽을 치루기 위하여서 투입된 예산이나 그밖의 모든 자원동원 규모의 특별조치가 청소년육성을 촉진하는 기